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가치관에 관한 연구

김기열[†]·오정림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A Study of on the Sexual Knowledge, Sexual Consciousness and Values of University Student

Gi Yeol Kim[†]·Jung Lim Oh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aewon University College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substantial foundation to establish effective sex education plan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o inquire into sexual knowledge, consciousness and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and into whether there are difference between health related major subjects and non-health related major subjec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students in 227 health related major subjects and 226 non-health related major subjects in chungbuk C city.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was re-made on basis of reviews and previous studies, and total of 453 questionnaires were used.

Results: Sexual knowledge scor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health related major subjects and non-health related major subjects. but health related major subjects were more educated contraception, pregnancy artificial abortion,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than non-health related major subjects. Sexual knowledge was correlated with attitude in sex, times of sex education and usefulness of sex education.

Conclusion: The university authorities make a curriculum for systematic sex educations and need to assertive support students and they can have right sexual consciousness and have mature and responsible attitude to sex through right education of knowledge in sex.

Key words: Sexual knowledg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value

접수일 : 2013년 10월 31일, 수정일 : 2014년 2월 18일, 채택일 : 2014년 2월 24일

교신저자 : 김기열(390-702 충북 제천시 신월동 599번지)

Tel: 043-649-3158 Fax: 043-649-3690 E-mail: pt6684@hanmail.net

· 서론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회생활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김성이, 2004), 이러한 매체를 통한 성상품화, 성적 자극의 난무, 향락산업을 발달,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성지식을 무분별한 습득과 같은 사회 환경과 올바른 성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와 입시 제도로 인한 강한 스트레스 해소 욕구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학생의 정서 속으로 파고들어 불건전한 성문화를 조장하고 있다(조명환, 2004). 특히 최근의 정보매체들의 급속한 발달은 성에 대한 개념과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젊은이들의 성규범이나 가치관 수립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 성윤리 및 성가치관에 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되고 있다(김경신, 2001). 실제로 김의 연구(김경신, 2001)에서 성폭력 발생건수가 세계 3위로 보고되어, 우리나라의 성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뉴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33.7건으로 일본의 6.6건의 5배가 되는 반면 검거율은 2011년 84.4%이며, 2002년 93.8%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염지은, 2013). 특히 충북뉴스에서 충북지역 13세미만 아동 성범죄 증가는 2011년 22건, 2012년 21건, 2013년 9월 기준 26건으로 3년간 총 69건으로 성범죄가 발생해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정민택, 2013),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올바른 성의식을 심기 위한 적절한 성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의 특성 및 순결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에서 이러한 성교육운영 및 교육과정 배치도 미흡하다. 실제 2012년 여성 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75.6%였으나,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33.1%라고 보고하였으며, 성교육의 기회 확대와 교육내용의 현실화를 제언하였다.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에 속하며 대학시절은 생애 중 가장 다양하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의 시기이며 또한 자아를 정립해야 하는 성인기의 초기로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 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인을 만들며 다른 세대를 키워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이상신 등, 2002). 그리고 이 시기의 성숙한 성 가치관과 성행위 양상은 생물학적인 성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에 대한 올바른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다(강미라 등, 2005; 이정연, 2001). 또한 대학생의 시기는 입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로 그들만의 양식을 형성해가며, 이성 교제와 성행동을 본격적으로 시도 할 수 있는 단계이며(최명숙과 하나신, 2004; 최혜정 등, 2012), 대학생들은 성행동에 관한 올바른 통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분명한 성지식과 건전한 성의식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일상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이인숙, 2009).

채규만과 정민철(2004)은 성의식은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포함 한다고 하였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은 성적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하는데 도움이 되며, 성숙한 인간이 보다 만족스럽고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영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김진희와 김경신, 2008), 김영순과 손수경(2004)은 성지식과 성태도는 교육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 질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무지로 인한 성에 관한 고민이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성을 주제로 한 연구를 보면 성의식과 성태도, 성행동을 중심으로 이론 연구는 다수 있으나(강미라 등, 2005; 김봉순, 2000; 김진희와 김경신, 2008; 김상희와 윤우철, 2012) 계열별로 성의식 및 성가치관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나 관련 성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보건업

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기에(최진과 김선미, 2011) 보건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성에 관한 지식 및 정보에 노출이 많아(최혜정 등, 2012) 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의 차이가 두 계열 간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어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가치관을 파악하고,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가치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비교하여 적용 가능한 대학 성교육의 근거 자료 및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대상자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0월 4일까지 충북 C지역에 소재한 D대학의 보건계열 250명과 비보건계열 250명이었다. 설문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결과분석이 곤란한 47부를 제외한 총 453부(보건계열 227부와 비보건계열 22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연구 도구로는 문헌 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한 설문지로 질문지 조사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박선영(2002)이 연구하여 제공되고 있는 성교육관련 설문지와 이창신(2000), 최진과 김선미(2011)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총 26개 문항으로 인구학적 및 일반 특성에 관한 6문항, 성지식과 성의식에 관한 11문항, 성가치관에 관한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에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의식 설문 11

항목이 성교육 및 성지식항목의 두 요인으로 묶여 성의식을 확인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계수를 검증한 결과 0.665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성지식, 성의식 및 성가치관에 관한 점수는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으며, 보건계열과 비보건 계열간 성지식에 관한 점수차는 t-test를 실시하였고, 성지식, 성의식 및 성가치관의 관련성을 Chi-square test와 상관관계로 분석하였고, 사용한 설문지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항목들을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계수를 검증하였다.

·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는 총 453명이며 보건계열이 50.1%, 비보건계열이 49.9%로 분류되었다<표 1>. 대상자의 남녀 성비는 남학생 39.7%, 여학생 60.3%였다. 종교는 무교(58.1%)가 가장 높았으며, 불교(11.1%), 기독교(10.4%), 가톨릭(10.2%)순이었다. 거주형태로는 부모님과 거주(44.2%)가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 거주(40.8%), 자취(12.1%)순이었다. 현 교제 상대가 있는 학생은 39.5%였으며, 교제 상대가 없는 학생은 60.5%였다. 부모님과 성관련 대화의 정도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41.7%) 필요할 때만 (36.0%) 자유로움(22.3%)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전공	보건계열	227	50.1
	비보건계열	226	49.9
성별	남	180	39.7
	여	273	60.3
종교	무교	263	58.1
	불교	50	11.1
	기독교	47	10.4
	가톨릭	46	10.2
	기타	47	10.4
	부모님과 거주	200	44.2
거주형태	기숙사 거주	185	40.8
	자취	55	12.1
	기타	13	2.9
	있다	179	39.5
현재교제상태	없다	272	60.5
	자유로움	101	22.3
	필요할때만	163	36.0
부모와성관련대화정도	전혀하지 않음	189	41.7
	합계	453	100.0

2. 성지식, 성의식, 성가치관의 차이

1) 대상자의 성지식의 차이

보건계열 비보건계열대학생들의 성지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보건계열은 25점 만점에 평균 16.65 점 이였고, 비보건계열은 평균 16.82점으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총 성지식점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성지식 비교

구분	보건	비보건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관계	3.45±0.84	3.48±0.96	-.388
성병	3.15±0.85	3.20±0.98	-.570
피임	3.38±0.93	3.52±2.19	-.876
임신	3.44±0.89	3.43±1.00	.175
낙태	3.20±0.96	3.16±1.03	.414
합계	16.65±3.81	16.82±4.82	-.408

2) 대상자의 성의식의 차이

자신의 성태도에 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중간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57.6%, 개방적 24.5%. 보수적 16.8%이었다. 경험한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은 보건계열 비보건계열로 나누어 교차분석한 결과 성병(4.058)과 피임(8.587), 경험한 성교육 없음(4.007)항목이 두 계열 간에 차이가 있었다($p < 0.05$). 그 외의 성관계, 임신, 낙태의 항목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교육횟수는 5회 이상(51.9%)이 가장 많았으며, 3회(21.4%), 2회(11.0%)순이었다. 성교육의 도움 정도는 보건계열은 그저 그렇다 60.4%, 아주 도움 되었다 15.9%,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10.1%순이었고, 비보건계열은 그저 그렇다 54.9%, 아주 도움 되었다 23.9%, 대체로 도움 되었다 10.6%순이었다.

성지식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 학교 74.4%, 친구

나 선배 31.4%, TV 비디오 18.1%순이었다. 알고 싶은 성지식 항목을 분석한 결과 피임 42.4%, 임신 36.8%, 성병 및 성행위 기법 34.0% 순이었으며, 성지식 최초 습득 시기는 중학교 시기 45.2%. 초등학교 시기 44.2%로 주로 초중시기를 통해 성지식이 주로 습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충동 대처방법을 분석한 결과 보건계열은 느껴본 적 없음 46.7%, 취미 생활로 대처 18.1%, 윤리 도덕심 자체 14.5%였으며, 비보건계열은 느껴본 적 없음 39.8%, 취미 생활로 대처 33.2%, 윤리 도덕심 자체 10.6%순이었으며 두 계열간 차이가 있었다($p < 0.05$). 성적욕구에 대한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보건계열은 남성이 강하다 41.4%, 개인에 따라 다르다 40.0%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50.0%, 남성이 강하다 23.5% 순으로 두 계열간 차이가 있었다($p < 0.05$) <표 3>.

<표 3> 성의식

구 분	보 건		비 보 건		전 체		χ^2	
	n	%	n	%	n	%		
성태도	보수적	47	20.7	29	12.8	76	16.8	7.068
	중간	131	57.7	130	57.7	261	57.6	
	개방적	47	20.7	64	28.3	111	24.5	
	무응답	2	0.9	3	1.3	5	1.1	
경험한 성교육 (복수응답)	없음	11	4.8	22	9.7	33	7.3	4.007*
	성관계	162	71.4	160	70.8	322	71.1	0.018
	성병	164	72.2	142	62.8	306	67.5	4.058*
	피임	188	82.8	161	71.2	349	77.0	8.587*
	임신	171	75.3	161	71.2	332	73.3	.968
	낙태	157	69.2	137	60.6	294	64.9	4.409
성교육 횟수	1회	17	7.5	18	7.9	35	7.7	2.667
	2회	24	10.6	26	11.5	50	11.0	
	3회	49	21.6	48	21.2	97	21.4	
	4회	14	6.2	22	9.7	36	7.9	
	그이상	123	54.2	112	49.6	235	51.9	

6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구 분	보건		비보건		전체		χ^2	
	n	%	n	%	n	%		
성교육 유용성	아주많이도움	36	15.9	54	23.9	90	19.9	8.462
	대체로도움	19	8.4	24	10.6	43	9.5	
	그저그렇다	137	60.4	124	54.9	261	57.6	
	별로도움안됨	23	10.1	12	5.3	35	7.7	
	전혀도움안됨	12	5.3	12	5.3	24	5.3	
정보원 (복수응답)	학교	165	72.7	172	76.1	337	74.4	4.513
	애인	10	4.4	14	6.2	24	5.3	
	친구나 선배	80	35.2	62	27.5	142	31.4	
	책 잡지	12	5.2	12	5.4	24	5.2	
	TV 비디오	41	18.1	41	18.2	82	18.1	
	컴퓨터 인터넷	26	13.4	21	9.3	47	10.4	
	기타	8	3.5	1	0.4	9	2.0	
없다	7	3.1	5	2.2	12	2.7		
알고 싶은 성지식 (복수응답)	성관계및생식작용	67	29.5	77	34.1	144	31.7	4.121
	성병및성행위기법	76	33.4	78	35.5	154	34.0	8.327
	피임	113	49.8	79	35.0	192	42.4	5.457
	임신	81	35.7	86	38.0	167	36.8	3.671
	낙태	39	17.1	55	24.3	94	20.7	3.463
성지식최 초습득 시기	초등학교 이전	8	3.5	4	1.8	12	2.6	3.001
	초등학교 시기	103	45.4	97	42.9	200	44.2	
	중학교 시기	98	43.1	107	47.3	205	45.2	
	고등학교시기	16	7.0	16	7.1	32	7.1	
	대학교시기	2	0.9	2	0.9	4	0.9	
성충동대 처방법	느껴본적없다	106	46.7	90	39.8	196	43.3	15.286*
	취미 생활 대처	41	18.1	75	33.2	116	25.6	
	애인/이성	31	13.7	20	8.8	51	11.3	
	애로영화/비디오	16	7.0	17	7.5	33	7.3	
	윤리도덕심자제	33	14.5	24	10.6	57	12.6	
성적욕구 이해	남성이 강하다	94	41.4	53	23.5	147	32.5	19.379*
	여성이 강하다	5	2.2	12	5.3	17	3.8	
	남녀 동일하다	37	16.3	47	20.8	84	18.5	
	개인에따라다름	91	40.0	114	50.0	205	45.2	
합계		227		226		453		

* p<0.05

3) 대상자의 성가치관의 차이

보건계열 비보건계열대학생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동성애에 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두 계열간 차이는 없었으며, 전혀 생각해 본적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4.5%이었다. 결혼에 대한 항목에서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음 37.5%, 가능하면 함 32.0%, 꼭 해야 함 27.2%순 이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보건계열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 48.8%,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 23.8%, 옳지 않다 15.0%순 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 46.9%,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 14.2%, 옳지 않다 12.8%순으로 두 계열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동거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어느 정도는 가능 36.6%,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능 26.3%, 결혼 전에는 피해야 한다 18.8%순으로 나타났다. 혼전 순결에 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사랑이 문제지 순결은 문제 되지 않음 49.2%, 현대 여

성이라면 자유롭게 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함 25.2%, 남녀 모두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함이 12.6%순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관계의 문제점에서는 보건계열에서는 혼전 임신 또는 임신 중절 50.2%, 기타 15.8%, 타인의 좋지 못한 시선 15.0%순 이었고, 비보건계열에서는 혼전 임신 또는 임신 중절 38.5% 기타 27.5%, 타인의 좋지 못한 시선 15.0%순으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p < 0.05$). 이성 교제의 경험의 항목에서는 현재 교제중이 40.0%, 현재는 없으나 경험 있다가 39.7%로 나타났다. 이성 교제시 경험한 신체 접촉은 손을 잡거나 가벼운 스킨쉽 42.4%, 키스 39.7%, 포옹 34.2%, 성관계 24.3%순이었다. 이성의 성적관심에 대한 반응은 지나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 준다 40.0%, 경험 없음 23.4%,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지 않으면 분위기를 바꾼다 22.5%순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대화자로는 친구 69.1%, 없다 11.5%, 어머니 6.6%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성가치관

구분	보건		비보건		전체		x^2	
	n	%	n	%	n	%		
동성애	있다	3	1.3	7	3.1	10	2.2	4.282
	가끔 있다	6	2.6	9	4.0	15	3.3	
	전혀 없다	218	96.1	210	92.9	428	94.5	
결혼	꼭해야함	54	23.8	69	30.5	123	27.2	5.469
	가능하면함	80	35.2	65	28.8	145	32.0	
	할수도안할수도있음	85	37.4	85	37.6	170	37.5	
	가능하면 혼자	8	3.5	7	3.1	15	3.3	
혼전성 관계	옳지 않다	34	15.0	29	12.8	63	13.9	20.618*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	109	48.0	106	46.9	215	47.5	
	결혼약속한사이 라면무방	54	23.8	32	14.2	86	19.0	
	사랑과 관계없이 가능	14	6.2	13	5.8	27	6.0	
	생각해본적없다.	16	7.0	46	20.4	62	13.7	

구 분	보 건		비보 건		전 체		x^2	
	n	%	n	%	n	%		
동 거	절대 반대	33	14.5	18	8.0	50	11.3	10.971
	결혼 전에는 피해야 한다	50	22.0	35	15.5	85	18.8	
	어느 정도 가능	76	33.5	90	39.8	166	36.6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능	51	22.5	68	30.1	119	26.3	
	잘 모르겠다.	17	7.5	15	6.6	32	7.1	
	사랑이 문제이지 순결은 문제되지 않음	114	50.2	109	48.2	223	49.2	
혼 전 순 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	13	5.7	16	7.1	29	6.4	1.640
	현대 여성이라면 자유롭게 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함	55	24.2	59	26.1	114	25.2	
	남 녀 모두 혼 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함	29	12.8	28	12.4	57	12.6	
	여자는 혼 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함	16	7.0	14	6.2	30	6.6	
	순결을 잃은 것에 대한 죄책감	18	7.9	20	8.8	38	8.4	
	상대방에 대한 매력 상실	15	6.6	17	7.5	32	7.1	
혼 전 성 관 계 문제 점	타인의 좋지 못한 시선	34	15.0	34	15.0	68	15.0	16.653*
	혼 전 임신 또는 임신 중절	114	50.2	87	38.5	201	44.4	
	성병의 감염	10	4.4	6	2.7	16	3.5	
	기타	36	15.8	62	27.5	98	21.6	
	현재 교제 중	96	42.3	85	37.6	181	40.0	
	현재는 없으나 경험 있음	89	39.2	91	40.3	180	39.7	
이 성 교 제 경험	전혀 경험 없다	42	18.5	50	22.1	92	20.3	1.117
	신체 접촉 없었음	12	5.3	21	9.2	33	7.3	
	손을 잡거나 가벼운 스킨쉽	112	49.3	80	35.4	192	42.4	
	포옹	85	37.4	70	31.0	155	34.2	
	키스	102	44.9	78	34.5	180	39.7	
	가슴 등 신체 부위 스킨쉽	34	15.0	38	16.8	72	15.9	
이 성 교 제 시 경험한 신체 접촉 (복수 응답)	성관계	50	22.0	60	26.5	110	24.3	2.461

구 분	보 건		비보 건		전 체		x^2	
	n	%	n	%	n	%		
이성의 성적관심에 대한 대응	지나치지않으면 자연스러운것으로 받아 준다	91	40.1	90	39.8	181	40.0	10.671
	적극적으로 응해 준다	13	5.7	26	11.5	39	8.6	
	징그럽고 소름돋는다	10	4.4	5	2.2	15	3.3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4	1.8	6	2.7	10	2.2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지 않으며, 분위기를 바꾸겠다.	59	26.0	43	19.0	102	22.5	
	경험 없음	50	22.1	56	24.7	106	23.4	
	없다	21	9.3	31	13.7	52	11.5	
성관련 대화자	아버지	3	1.3	5	2.2	8	1.8	7.048
	어머니	19	8.4	11	4.9	30	6.6	
	친구	163	71.8	150	66.4	313	69.1	
	형제 자매	9	4.0	9	4.0	18	4.0	
	상담전문가	3	1.3	3	1.3	6	1.3	
	기타	9	4.0	17	7.5	26	5.7	
합계	227		226		453			

* p<0.05

3. 상관관계

1) 성지식과 성의식의 상관관계

성지식과 성의식의 상관관계 분석은 <표 5>와 같다. 성지식은 성태도, 성교육 횟수, 성교육의 도움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지식이 높을수

록 성태도가 개방적 이었으며, 성교육 횟수도 많았고,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p<0.01). 성태도는 성적욕구이해 항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적욕구의 이해에 있어 남성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 하였다(p<0.05).

<표 5> 성지식과 성의식의 상관관계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횟수	성교육 도움정도	성적욕구이해
성지식	1	.138**	.214**	-.174**	-.028
성태도	-	1	.073	.050	.114*
성교육횟수	-	-	1	-.026	.028
성교육도움정도	-	-	-	1	-.032
성적욕구이해	-	-	-	-	1

* p<0.05, **p<0.01

2) 성지식과 성가치관의 상관관계

성지식과 성가치관의 상관관계 분석은 <표 6>과 같다. 성지식은 이성교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p<0.01), 이는 성지식이 높을수록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혼전 성관계와 동거(p<0.01), 이성 교제(p<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혼전 성관계의 허용이 높을수록 동거에 대한 허용도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동거는 혼전 순결(p<0.01)과 혼전 성관계의 문제점(p<0.05) 항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혼전 순결은 이성 교제(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6> 성지식과 성가치관의 상관관계

	성지식	동성애	결혼	혼전 성관계	동거	혼전순결	이성교제
성지식	1	.039	-.066	-.053	.011	-.069	-.206**
동성애	-	1	-.023	-.034	-.029	.076	.080
결혼	-	-	1	.000	.000	.057	.071
혼전성관계	-	-	-	1	.249**	-.055	.107*
동거	-	-	-	-	1	-.153**	.051
혼전순결	-	-	-	-	-	1	.126**
이성교제	-	-	-	-	-	-	1

* p<0.05, **p<0.01

· 논의

본 연구는 변화되는 성문화에 대해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성가치관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여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보건계열 50.1%, 비보건계열 49.9%였으며, 남학생 39.7%, 여학생 60.3%였다. 대상자의 계열별 성지식에서는 보건계열이 25점 만점에 평균 16.6점, 비보건계열은 평균 16.8점으로 보건계열 학생들은 보건관련 전공 및 학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되었으나 계열간 총 성지식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혜정 등(2012)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학 자체에서의 성교육 교과목이 개설

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통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차원에서의 적절한 교육과정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인다.

성의식 분석 결과 자신의 성태도에 관한 문항은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모두 중간이라고 한 대상자가 높게 나타나 김혜원과 홍미애(2003)의 연구, 최명숙과 하나선(2004), 박선영(2002)의 연구와 비슷하였다. 경험한 성교육 도움 여부에서는 보건계열은 피임과 임신 그리고 성병 등이며 비보건계열에서는 피임과 임신 그리고 성관계 순으로 두 계열 간에 차이가 있었다. 성지식의 정보원에 있어 환경순과 함미영(2000)의 연구, 최진과 김선미(2011)의 연구에서는 친구가 가장 높았으나, 본 연구는 학교(74.4%), 친구나 선배(31.4%)순으로 강미라 등(2005)연구와 일치 하였다. 성교육 및 성지식 습득이 가장 빈번한 경로가 학교임을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성교육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자녀들

의 성적 성숙과 이들의 성에 대한 관심이나 의문 또한 성행동 지도를 위한 부모용 성교육프로그램이 적극 개발 되어야 할 것이며(김봉순 2000), 이와 더불어 전문적인 성지식을 갖춘 성문제 상담 자원 양성이 요구되어 진다. 대학생들의 알고 싶은 성지식 항목에서는 보건계열에서 피임과 임신, 최진과 김선미(2011)의 연구에서는 임신 출산을 보고 하였다. 또한 최혜정 등(2012)의 연구에서도 보건계열 여대생이 생명 윤리와 피임에 관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보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 하였다. 성지식의 최초 습득 시기는 다수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로 강미라 등(2005) 연구와 거의 일치하였고, 습득시기가 가장 많은 시기는 중학교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정착 종합실태조사에서 성경험은 평균 15.1세에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급변하는 성문화로 인해 성관계의 연령이 낮아지고 그 수는 늘어나고 있음으로, 체계적인 조기성교육 실시를 통해 성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성경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예방과 올바르게 건전한 성윤리 정립을 위해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김봉순, 2000).

동성애에 관한 가치관에서는 전혀 생각해 본적 없다는 대상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 최진과 김선미(2011)연구와도 일치하였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두 계열 모두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하다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거에 대한 가치관과 혼전 순결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순결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대상자가 많아 대학생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과거에 비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만큼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삶을 위한 성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성의식을 공유하면서 성의미를 직접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최진과 김선미 2011). 따라서 자신들의 성지식을 점점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혼전 성관계의 문제점은 계열 모두 혼전 임신 또는 임신 중절 이라고 응

답한 자가 가장 높아 무엇보다 성교육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성 행위 후 자신을 관리 할 능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절대적이라 볼 수 있다. 이성 교제시 경험한 신체 접촉은 손을 잡거나 가벼운 스킨십이 높았고, 강미라 등(2005)연구와 최혜정 등(2012) 연구에서는 키스가 높은 것으로 대부분 남녀 간의 이성 교제시 애정을 신체적 접촉으로 표현 하는 방식으로 쉽게 허용됨을 알 수 있었다. 성관련 대화자로는 강미라 등(2005)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친구가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상담률은 다소 낮게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지향적인 방법으로도 해결 할 수 있는 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지식과 성의식의 상관관계에는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조사되어 김상희와 윤우철(2012)연구, 최혜정 등(2012)연구, 최명숙과 하나선(2004)과 박선영(2002)연구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최근 일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고 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시대흐름에 맞는 성지식 교육으로 책임감 있는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성교육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충북 C지역에 소재한 D 대학교 재학생 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지역으로 국한된 점과 계열별로 대학생 전체의 특성을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면대면 면접이 아닌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형으로 실시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민감한 답을 원하는 문항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학생의 성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지만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로 비교 분석한 연구조사는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관련 성교육과정의 개설과 더불어 교육을 통해 성의식과 성가치관에 변화 추이를 비교 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방적이고

동적인 대학생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이며 전문적인 내용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학교, 가정, 사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본 연구는 현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성가치관의 특징을 알아보고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가치관의 실제 차이를 비교 하여 대학 성문화의 실태 파악과 성교육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13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 까지 충북 C지역 소재의 D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시행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 계열과 비보건 계열 사이의 성지식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성교육 내용적인 면에서 비보건 계열에 비해 보건계열이 피임, 임신, 낙태, 성병에 관한 성교육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싶은 성지식에서도 비보건 계열에서 임신과 낙태, 성병, 성행위 기법, 성관계 및 생식작용에 관한 성교육 요구가 보건계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성의식 항목 중 성태도의 차이는 주관적 성태도 있어 모두 중간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두 계열 모두 57.7%였으나 개방적이라는 응답한 대상자는 보건계열에 비해 비보건 계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개방적이라고 응답하는 대상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는 점점 개방화 되어 가는 대학생들의 성태도를 보여준다. 성지식의 최초 습득 시기는 두 계열간 차이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중학교시기에 성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 성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충동 대처항목과 성적 욕구이해 항목에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간 차이

를 보였다.

3. 대상자의 성가치관의 차이는 혼전 성관계 허용과 혼전 성관계의 문제점 항목, 이성과의 신체 접촉 항목에서 두 계열간 차이를 보였다.

4. 성지식과 성의식의 상관관계에서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는 개방적 이었으며, 성교육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교육의 도움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성지식과 성가치관의 상관관계에서 성지식이 높을수록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와 혼전성관계의 허용, 혼전순결, 이성교제와 혼전순결항목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성지식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성태도 확립에 영향을 끼치며,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기존의 성교육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생의 개방적인 성문화를 반영한 대학의 성교육 특징을 부각시켜, 현사회의 성의식의 문제점과 성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 양상에 맞는 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체적인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따른 대학차원의 교육과정개설 및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강미라, 김두화, 김성현.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005;26:273-276.
2. 김경신.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 분석을 통한 성교육프로그램. 한국가족학회지 2001;6(1):81-201.
3. 김민석. 성관계유경험청소년 평균 15세 시작. 국민일보 2013년 9월 25일자.
4. 김봉순.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경험 실태에 관한

- 연구. 공주영상정보대학 학술 논문집 2000;10(1): 111-124.
5. 김상희, 윤우철. 남자대학생의 성의식과 성태도. 한국공중보건간호학회지 2012;26(2):248-257.
 6. 김성이. 청소년 복지학. 서울: 집문당, 2004.
 7. 김영순, 손수경. 성관련 강좌가 대학생들의 성지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5;18(1): 83-93.
 8. 김진희, 김경신.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008;13(1):123-138.
 9. 김혜래, 이혜원. 일부 육군사병의 성지식수준과 성교육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006;18:77-104.
 10. 김혜원, 홍미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007; 14(2):269-297.
 11. 박선영.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12. 송은주, 이경혜. 간호대생과 타전공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이화간호학회지 2005;39:43-67.
 13. 여성가족부.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집중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012.
 14. 염지은. 성폭력 일본 5배 검거율 2002년 이후 최저. 서울 뉴스1. 2013년 7월 22자 <http://news1.kr/articles/1248437>.
 15. 이상신, 윤지현, 이면우.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연구. 춘천교육대학교 학생지원상담소. 학생생활연구 2002;24:89-135.
 16. 이인숙. 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행동 연구에 관한 고찰. 극동 정보 대학 논문집 2009; 15:161-177.
 17. 이정연.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성의식 및 대인관계간의 상관연구[석사학위논문]. 춘천: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1.
 18. 이창신. 덕성여대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000; 16(3):69-103.
 19. 정민택. 충북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증가. 충북 세종 뉴스 2013년 10월 25일자 <http://news1.kr/articles/1377228>.
 20. 조명환. 대학생의 성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학생생활연구 2004;32(2):5-37.
 21. 채규만, 정민철.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4;9(4):869-886.
 22. 최명숙, 하나선. 대학생의 성 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유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4;10(4):319-330.
 23. 최진, 김선미.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성의식 및 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1;12(3):1253-1259.
 24. 최혜정, 강진아, 김연희.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중심으로.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12;13(2):29-44.
 25. 한경순, 한미영. 일개대학 대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 간호 교육학회지 2000;6(1):115-131.